



영성의 바다 (2) 바른 영성이란

성인경

성경적인 영성은 외식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반지성적이거나 부정적인 영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한 영성은 기독교의 영적 체험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구나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메마른 영혼을 치유하고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바른 해결책이 못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첫째, 바른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ikon)'이란 말은 인간 창조와 영적 체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영혼, 감정, 지식, 의, 거룩, 사랑, 창조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22-24, 골로새서 3:9-10, 고린도후서 3:18)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창조시에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적 체험과 성격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은 구원론적으로는 구원의 서정 중에서 '성화의 교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어떤 정형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체험의 본질입니다. 여기의 영적 체험이란 단지 영혼의 중생(born agai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일찍이 종교 개혁가 존 칼빈(J. Calvin)은 이점을 지적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실제적으로는 타락으로 인해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27,28) “마음을 다하여(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여(with all your soul), 힘을 다하여(with all your strength), 뜻을 다하여(with all your mind)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성품 중에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체험이요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상이 회복되었고 어떤 형상이 아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른 영성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둘째, 바른 영성은 예수님을 순간 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는 예수님을 '추억의 박물관' 속에 묻어 두고 영적으로 자율적인 독립을 자처합니다. 아마 니이체(F.Nietzsche)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 한 번의 결혼식으로 부부간에 계속되어야 할 반복적인 사랑의 고백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영성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지고 과일을 맺듯이(요한복음 15:4),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되 중생할 때 한 번만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순간순간(moment by moment)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로마서 3:21-8:39)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실존적인 순간순간 의지하는 믿음은 없으면서도 온갖 영적인 형식과 테크닉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전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지 단지 중생 하는데 필요한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나, 날마다 직면하는 시험의 위기 앞에서나,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고린도전서 13:13)

버스 안에서 발이 밟혔을 때, 성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 혹은 자기를 향한 비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신사 숙녀의 체면이나 용기로, 아니면 믿음으로 이깁니까? 신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독자 이사를 바치라는 영적 위기와 시험 앞에서 키엘케골이 말했듯이 "신앙의 비약"을 감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그 분을 전적으로 믿은 까닭입니다.(히11:8-12)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바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믿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영성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도 주님께 떠맡겨 놓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순간 순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동성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악한 행실을 죽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영성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비영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 인지를 살핀 결과,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성경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도 성령의 책임인 것처럼 변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주

체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성령에 빠진 주어, “네가(you)”입니다.(로마서 8:13)

이처럼 기독교인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는 삶, 즉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동시에 100% 인간의 자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영성을 쫓는 “수동적 적극성(passive activity)”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여 세상을 도피하거나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힘입어 그 나라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염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안주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들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시편110:3)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보배라는 상징입니다. 새벽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배의 상징입니다.(창세기 27:28,29; 신명기 33:13,28; 호세아 14:5; 학개 1:10) 그들이 보배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영적으로 무장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 중에 하나는 악령이 조종하는 잘못된 이념이나 권력입니다.(고린도후서 10:4,5; 에베소서 6:10-20)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있던가 아니면 이념과 권력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보, 정치,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거나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른 영성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넷째, 바른 영성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느냐?” 저는 수많은 청년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이 풍성해 질 것이다.”는 대답보다는, “예수 믿으면 쩌쩌하거나 쫘쫘하거나 인생을 망칠 것이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옛 사람을 변화 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든 것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new humanity)”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에베소서 2:15,4:22-24;요한복음8:32;골로새서3:10)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 인간적이 되거나 인간답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인간, 즉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죄를 삼지만 인간을 문체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란 라브리의 설립자이고 자유대학교의 미술사교수였던 로크마커(H.Rookmaaker)의 말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예수쟁이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려고 오셨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사람다운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주위의 비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인가를 과시해

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인간화의 종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양있는 인간으로 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신앙적인 것에만 제한하지 않고 먹고 말하고 놀고 일하는 삶 전체에서 변화된 인간성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자아상실의 종교'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가 파괴되거나 예수나 성령으로 대체된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오해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16:24)에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의 '자기부인(self-denial)'은 문맥상 자기의 죄성이나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결코 '자기파괴(self-destroy)'나 '자기대체(self-replacement)'를 시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세적인 영성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증거됩니다. 골로새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골로새서 2:6-15) 세상으로부터 자유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기독교적인 고립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조류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2:16-3:4) 예수님이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아직도 그런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3:5-17)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결코 일상적인 육체적인 체험이나 평범한 인간 생활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결코 인간성을 부인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성철 스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비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며, 특히 거짓이 없는 선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영적입니다.(에베소서4:25) 이처럼 바른 영성은 자아가 상실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아를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바른 영성은 지성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사도가 철학을 "초등 학문"(골로새서 2:8)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반지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모든 철학이 다 무가치하다고 보거나 지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추구하는 것까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잘못된 철학은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색의 나래를 펴는 것을 말하며 결국 그것은 성경을 떠난 사색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실패작이었으며 전도의 열매도 신통치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설교(사도행전 17:16-34)는 지성적 변론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유력한 사람들이 믿은 것으로 보아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2단계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하나의 기본적인 유신론적 준거 틀을 수립하므로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2단계는 죄, 죄의식, 구속, 믿음, 회개 등과 같은 용어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신론적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웨퍼는 그 점을 가리켜 “예비 전도(pre-evangelism)”라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로마서1:16,17)고 고백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경험과 지성이 만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경험적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성적인 “지혜”를 찾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들의 요구에 만족한 대답이십니다.(고린도전서 1:22-25)

바울 신학의 그 어디에도 기독교 신앙이 비지성적이거나, 기독교 영성은 반지성적이라는 약간의 힌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앙과 지성이 하나되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에베소서 4:13-14)

사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입니다. 바울은 베스도라는 정치인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이 “진실되고 합리적이라는 것(true and reasonable, NIV)”고 고백했습니다.(사도행전26:25) 반지성은 반신앙과 통합니다. 기독교가 반지성적이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성을 사용하여 기독교 복음을 이문화 하는 작업을 했고, 그가 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성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는 웨퍼의 주장은 백 번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하며 그 아는 것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다.”(H.Ridderbos)는 말도 타당합니다. 바른 영성은 감정이나 지성 중에 어느 한 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바른 영성은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믿습니다.

죄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everything is possible)”는 것이 영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데이트하든지, 컴퓨터 앞에 앉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죄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과연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 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영성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시고 바베큐를 준비하셨고, 생선과 빵을 드시고 소화시키셨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잔치집 손님들이 마시고 즐기도록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마태복음4:23;누가복음24:28-32;요한복음2:1-12)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물질계와 정신계를 분리하거나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분리하신 이원론

에 사로잡힌 흔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느 한 쪽을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하고 영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물을 한 잔 마시든지, 쓰레기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죄짓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영성을 단적으로 표현 곳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12-18)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10:31)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4,5)

다음은 기독교 복음의 이론화 작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울 사도의 영성의 요체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로새서 1:16-19)

한 마디로 그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주님의 ‘주재권(Lordship)’이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에서 과시되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쉐퍼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나는 바른 영성의 강조점을 삶의 전 영역, 즉 예술, 문학에서부터 법과 정부의 영역까지를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F.Schaeffer)

[정리] 바른 영성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1) 바른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요 회복입니다.
- 2) 바른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순간 순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중생할 때 믿고 추억의 박물관 속에 진열해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 3) 바른 영성은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삶입니다.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 4) 바른 영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 5) 바른 영성은 지성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입니다. 지식과 체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6) 바른 영성은 성령 안에서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삶의 전 영역에서 과시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